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돼지' 단어의미연상*

범금희**

〈차 례〉

1. 머리말
2. 자극어 선정과 '단어의미연상' 검사: 절차, 용어, 기타 사항
3.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 양상
4. '단어의미연상' 반응어와 '자유연상' 반응어의 비교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 명칭 중 '돼지'를 선택하여, 제시어(돼지)와 자극어(동물, 별명)를 따로 설정하는 '제한연상'의 '단어의미연상검사'를 한국인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그것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각국의 사전에 기술된 '돼지(제시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극어 1(동물)'과 '자극어 2(별명)'를 선정할 수 있었다. ② 구분된 자극어로 한국인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대학)생들에게서 유의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400).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 연상 반응어를 산출할 수 있었다. ③ 유의미 반응어로 양국 학생들의 머릿속 연상 작용 과정을 비교해 보고 그것의 유형을 분류하고 제시할 수 있었다. ④ 선행 연구(자유연상)의 반응어와 본 연구의 반응어를 비교해 보고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본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그리고 장점 및 특성이기도 하였다.

주제어: 돼지, 단어의미연상, 자극어, 제시어, 반응어, 동물, 별명

1. 머리말

본 연구는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 명칭 중 '돼지'를 선택하여, 그것을 '제시어'로서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대학)생에게 보여준 다음, 따로 설정된 '자극어'로 학생들의 연상 방향 및 범위를 제한했을 때의 반응어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이는 연상 방향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선행 연구 결과와 어떠한 점에서 공통되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연상자의 머릿속 연상 과정과 결과를 좀더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 및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단어연상검사(word association test)'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리적 작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중 선행 연구에서 실시해 왔던 것은 '자유연상'은 제시어와 자극어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연구 중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로는 박선옥[1], 김은혜[2] 등

1) 박선옥, 「한국인과 중국인의 단어 연상의미 조사 분석과 단어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25집, 2008, pp. 71-98.

이 있다. 전자의 경우 초·중급 한국어 학습서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어휘를 추출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어연상검사를 실시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돼지'는 없었다. 후자의 경우 한국인 20대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돼지'를 제시해[3] 그것이 어떠한 연상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본 결과물이었다.

이와 같은 자유연상은 연구자에게 검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해 주고 연상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상자에 대한 의존은 그들의 머릿속 연상 작용 과정과 반응어를 더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 볼 기회를 놓치게도 한다. 왜냐하면 '돼지'와 관련해 선행 연구 결과에는 다음의 밑줄 친 어휘가 반응어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 돼지는 항상 자고 다른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학습자 1, 마○○)
(b) … 매일 잘 먹고 자고 있지만 마지막은 사람이 먹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학습자 3, 왕○○)

위 자료는 글쓰기 능력 진단 검사를 위한 20분 정도의 자유 작문 시간[4]에 산출한 문장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제공해 준 것은 사진 속 '돼지'뿐이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지식 및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럼

2) 김은혜, 「의미 중심 어휘 지도를 위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조사」,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제88호, 2011, pp. 135-169.
3) 해당 연구자는 '자극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선행 연구의 제시어가 자극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용어 '자극어'와는 다르다. 다만 우연하게 용어가 같을 뿐이며 그것의 역할은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4) Y대학교 교양국어 외국인 반에서 실시한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정 어휘가 26% 정도(23명 중 6명)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고찰해 놓은 선행 결과물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특정 어휘 출현을 연구 동기 및 시발점으로 삼아 여러 동물 명칭 중 '돼지'를 우선으로 '제한연상'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검사를 강조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연상검사'가 아니라 '단어의미연상검사'라고 명명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덧붙여 본 연구가 '돼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 이유를 기술하면, 첫째, '돼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지내왔으니 이와 관련된 연상 속에는 인간의 사회 및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속담, 관용어, 십이지신(十二支神) 등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단어의미연상검사를 한 중국인 유학(대학)생이 Y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대학에서는 교양국어로 각 계열별 '명저 읽기와 글쓰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로 '문화의 수수께끼'를 선정해 놓았다. 이곳에 '돼지'가 나온다. 셋째, 두 번째 이유와 관련지어 나올 후속 연구 결과물이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이기 때문이다.[5)]

2. 자극어 선정과 '단어의미연상' 검사: 절차, 용어, 기타 사항

첫 번째 자극어는 '돼지(제시어)'의 '상위어'이다. 각국 사전(辭典)[6)]에 나오는 '개념적·중심적 의미' 중에서 '상위어'로 사용할

5) 셋째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은 후고로 미루겠다. 그 이유는 본고의 논지 전개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6) 한국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웹사이트)'을, 중국은 '汉典(웹사이트)'을 참고하였다.

만한 후보자 단어를 밑줄을 그어 1차적으로 추출하고 그중에서 공통된 1개를 선택하였다. 아래가 해당 과정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1〉 자극어 1(동물) 선정 과정

국적	'돼지(제시어)'의 개념적 · 중심적 의미	⇨	자극어 1 후보 단어	⇨	자극어 1 선정
한국	▪ 동물. 멧돼짓과의 포유류. 몸무게는 200~250kg이며, 다리와 꼬리가 짧고 주둥이가 삐죽하다. 잡식성으로 온순하며 건강하다. 임신 4개월 만에 8~1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멧돼지를 길들여 가축으로 만든 것인데, 중요한 축산 동물의 하나로 모양과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다.		동물/ 포유류/ 가축/ 축산 동물		동물
중국	▪ 猪只, 组成猪科的各种哺乳动物的任一种, 四肢短小, 尾短, 体毛稀疏, 鼻面短凹或平直, 耳大下垂或前挺, 被毛较粗, 有黑、白或黑白花等色, 汁腺不发达, 热时喜浸水散热		哺乳动物		

두 번째 자극어는 '돼지(제시어)'의 '언어 사용역[7]' 및 '사용 정황(情況)'과 관련 있는 단어인 '별명'이다. 양국 사전에 나오는 '연상적 · 주변적 의미' 중에서 '인간'이 유년시절부터 자주 접할 수

7) '언어 사용역(Resister)'은 보통 '활동 분야'와 '영역'뿐만 아니라 주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즉 '화자, 청자, 주제, 목적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는, 체계적 언어 변이를 통하여 정의되어 왔다. 크리스털과 데이비(Crystal and Davy(1969))는 '활동분야(province)'라는 용어로, 피시맨(Fishman(1965))은 '영역(domai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전자는 후자의 '전형적으로, 공통의 행동 규칙들의 한 공통 집합으로써 제약된 사회적 상황들의 묶음'이라고 정의하는 '영역'보다 그 영향권이 좁다고 하였다('강범모 옮김, 『의미론 2』, 한국문화사, 2013, pp. 322-327'을 참조하라).

있는 '대상' 및 '사회·문화적 사용 환경'과 유사한 것에 밑줄을 그어 후보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할 만한 표현으로 기술하였고 최종적인 대표 단어로 '별명'을 설정하였다. 아래가 해당 과정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2 〉 자극어 2(별명) 선정 과정

국적	제시어 '돼지'/ 연상적·주변적 의미		자극어 2 후보 단어		자극어 2 선정
한국	▪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사람에게 사용(비유 또는 놀림조)		
중국	▪ 猪魈(猪怪, 猪精) ▪ 猪膀胱(又称 "猪尿泡"、"猪胞"、"猪尿脬"、"猪脬") ▪ 小猪(又叫 "猪牙子"、"猪仔"、"猪娃"、"猪娃子"[8]) ▪ 母猪(又叫 "猪婆"、"猪婆子"、"猪娘"[9])	⇨	사람에게 사용(칭찬(애칭), 욕설, 방언)	⇨	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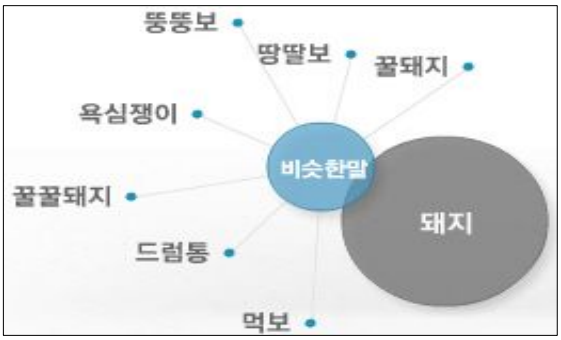
자극어를 '별명'으로 설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돼지'의 유의어 때문이다. 아래는 유의어 사전[10]의 관련 부분이다.

8) '착한 아이, 착하지'로 흔히 사용한다('중국어 사전(daum)'의 웹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9) '① 돼지 같은 년(욕설)', '② 암퇘지(방언)'으로 뜻풀이되어 있다('중국어 사전(daum)'을 참조하라).

10) (주) 낱말의 '반의어-유의어 사전' 웹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을 참고하라.

〈그림〉 유의어 사전, (주) 낱말



'인간'을 대상으로 '돼지'의 유의어가 분표하고 있음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자극어로 '별명'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유연상'보다는 '제한연상(제시어와 자극어의 분리)'인 '단어의미연상'를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본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이 된다. 즉 '제시어'는 '연구 대상'을 '연상자'에게 '제시 및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고 '자극어'는 '① 제시어'와 관련지으면서 '연상 작용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② 그것의 테두리 안에서 '연상자의 머릿속 그 무엇을 활성화시키거나 점화시키는', 곧 '자극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제시어'는 연상자의 머릿속보다는 '머리 바깥(시각·청각 등)'에서 '연상 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의 어휘'이어야 하고 '자극어'는 연상자의 '머릿속 연상 작용'과 관련된 '연상 범위와 방향'을 '머릿속에서 최대치로 점화 및 활성화(자극)할 수 있는 역할의 어휘'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어와 자극어의 역할 분리가 이뤄진 본 연구의 '제한연상'인 '단어의미연상'은 제시어가 곧 자극어인 선행 연구(자유연상)보다는 더욱 정밀한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돼지'의 반응어 '자다' 관련 어휘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선정된 자극어 1, 2와 제시어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개 학기에 걸쳐 한국인 1학년 대학생과 한국에서 수학(修學) 중인 중국인 1학년 대학생(이하,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한연상'인 '단어의미연상검사'에 활용되었다. 한국인 1학년 대학생은 Y대학교 전공 과목 수강생(1학년)이었고, 중국인 1학년 대학(유학)생은 교양국어 사회계열 '명저 읽기와 글쓰기' 외국인 반 수강생이었다.

본 연구는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검사[11]를 통한 보완(A)과 본격적인 단어의미연상검사 실시 후 응답 인원 수의 조정(B)이 필요했다. 전자는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 숙달도 차이, 후자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응답 인원 수의 불일치 때문이었다. (A)의 경우 국내 대학 정규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수한 유학생들 중 일부가 '자극어 2'로 선정된 '별명' 어휘의 뜻을 몰라 반응어를 쓰지 못했다. 이를 본 연구자는 개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약간의 처리가 필요했다. 그리해 본격적인 검사 때 자극어 1(동물)과 2(별명), 그리고 제시어(돼지)에 대해 약간의 안내 사항을 제공하였고 5개 칸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물론 검사지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해 제공하였다. 그래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반응어를 한글로 바꾸거나 번역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중국어로 작성하게끔 유도하였다. (B)는 응답 인원수 문제로 본격적인 검사 후 조정한 것이다. 본격적인 검사는 시행 날짜를 예고하거나 반응지를 미리 나눠 주지 않는다. 즉 예고 없이 수업 출석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다 보니 양국 학생들의 응답 인원 수를 동일하게 맞출 수 없다. 그러하다 보니 한국인 대학생의 반응지가 41명 더 많은 81명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11) 예비 검사는 중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격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 직전 학기의 수강생 중 숙달도가 3급 이상(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인 학생과 숙달도가 2급인 학생 각 1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의 신뢰가 떨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연상자들이 해당 검사 시행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에 그것의 신뢰도를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동일한 인원 수가 검사 결과의 엄밀성 및 신뢰도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무작위 추출'을 실행하였다. 일종의 통계적 처리 방법으로 81명의 한국인 대학생을[12] 무작위로 가려내어 중국인 유학생과 동일하게 40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반응지'는 자극어에 따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적게끔 구성되어 있고 개수는 5개이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개인당 반응어 최대 개수(칸 수)와 선행 연구에서 구성한 칸 수(대략 5개)를 대응해 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기타 응답'은 소수 반응어이다. '무응답'은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은 빈칸을 의미한다. 이는 유의미한 반응어가 아니기에 빈도, 비율, 누적 비율의 구체적 논지 전개에 이용되지는 않는다. 요약하면, '무응답'은 연상자의 연상 능력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어떤 이는 주어진 시간 안에 반응어 기입 칸을 다 적을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빈칸(무응답)'은 둘째 칸보다는 셋째 칸에 더 나타날 것이고 셋째 칸보다는 넷째·다섯째 칸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둘째 칸 이하부터 무응답 빈도와 비율은 구체적인 응답 빈도와 비율보다 점점 높아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본 연구의 신뢰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빈도(이하. 빈도)'라는 것은 첫째 칸은 첫째 칸대로 모으되 구체적인 반응어 어형별로 분류한 뒤 합산한 것이다. 이를테면 첫째 칸에 적은 반응어는 첫째 칸대로 모아 대표 어형별로 빈도를 산출하고, 둘째 칸은 둘째 칸대로 모아 빈도를 합산한

12) 처음으로 연상하는 것은 첫째 칸에 쓰고 다음으로 연상되는 것은 다음 칸에 순서대로 쓰는 것으로 첫째 칸은 학생들 모두가 응답하여야 하는 필요 조건이었다. 이는 나아가 응답 인원 수로 산정되었다.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를 본고의 표 안에 모두 넣어 제시하지는 않았다. 빈도 1짜리가 자주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응답 인원이 40명인데 실제 표에 제시한 빈도를 합산해도 응답 인원과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표의 '응답 인원'을 각주로 처리해 관련 반응어와 빈도를 제시할 것이다. '상대빈도'는 전체 응답 인원 수에서 차지하는 절대빈도의 정도이다. 흔히 비율이라고 부른다(이하. 비율). '누적 비율'은 앞의 비율을 계속 합산해 놓은 것이다(이하. 누적 비율). 그리고 '반응어'라고 불리는 대표 어형은 연상자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 낸 것 중에서 하나를 선정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국어 사전에 수록된 기본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3]. 덧붙여 일부 대표 어형은 연상자의 반응 의도를 추정해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핑크색', '분홍색, 분홍', '살색'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는 부분적으로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피부색'을 염두에 두고 생성해 낸 것으로 추측되기에 본 연구자는 유의어로 처리한 뒤 각 칸마다 대표 어형 하나로 통일하였다.

본 연구는 전개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누적 비율이 60% 이내에 들어가는 대표 어형만 뽑아 표를 만들었다. 그중 진한 색 어형은 논지 전개를 위한 근거로 제시한 유의미 반응어이다. 나머지는 누적 비율이 60% 이내라고 하더라고 주변 반응어로 처리한다. 이를테면 무응답과 기타 응답은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진한 색이 아니다. 그리고 누적 비율이 60% 이내이고 빈도가 1짜리인 어형도 그러하다. 또, 만약 빈도 및 비율이 동일한 어형이라 하더라도 누적 비율에서 어느 하나라도 60% 이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진한 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한 색 유의미 반응어는 본 연구의 주요 논거임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

13) 실제 반응어 어형은 절대빈도와 함께 각주에 수록해 놓았다.

3.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 양상

1) 자극어 1('동물')과 각 칸별 반응어

(1) 첫째 칸

여기에서부터는 앞에서 제시한 표의 글자가 진한 것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극어 선정시 이용한 각국의 사전(辭典) 속 뜻풀이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로 '꿀꿀, 꼬리, 돼지고기, 핑크색, 코, 콜레라'가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동일한 자극어(동물)로 연상의 방향과 범위를 제한하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반응어는 '맛있다, 돼지고기'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자극어 1(동물) / ①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꿀꿀	6	15%	15%	1	맛있다[14]	8	22%	22%
2	꼬리	4	10%	25%	2	돼지고기[15]	6	17%	39%
3	돼지고기[16]	4	10%	35%	3	뚱뚱하다	4	11%	50%
4	핑크색[17]	4	10%	45%	4	불고기	4	11%	61%
5	코	3	8%	53%					
6	콜레라	3	8%	60%	응답 인원[18]		40	100%	
응답 인원		40	100%						

14) '먹고 싶다(1회)'를 포함하였다.
15) '고기(4회)'를 포함하였다.
16) '고기(3회)'를 포함하였다.
17) '분홍색(2회)'를 포함하였다.
18) 응답 인원과 반응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표에 논의의 편의를

이를 좀더 유사한 속성으로 모아 분류한다면, '돼지고기'는 '음식 재료'이고 '꼬리, 코'는 '외양', '핑크색'은 '피부색', '꿀꿀'은 '소리', '콜레라'는 '병명(病名)', '맛있다'는 '맛 평가'이다. 그중 '꼬리, 코(외양)', 그리고 '핑크색(피부색)'은 한국인 대학생들의 반응어로서 한국인의 사전(辭典)에 '돼지'의 '동물적 특징'으로서 기술되어 있고 '사전의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맛있다(맛 평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응어로서 '돼지'의 '동물적 특징'과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전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아래가 이를 뒷받침해 줄 각국 사전(辭典)의 뜻풀이이다.

〈표 4〉 각국 사전, '돼지' 중심적 의미 서술 내용

한국	▪… 다리와 꼬리가 짧고 주둥이[19]가 삐죽하다. … 중요한 축산 동물의 하나로 모양과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다.
중국	▪ 반응어와 일치하는 부분이 없음.[20]

'돼지'의 '동물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의 '반응어'가 사전에도 나타나면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위의 '국어 사전'에 나오는 '꼬리, 주둥이, 색깔'이 그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대학생 반응어는 사전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중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그들의 사전에서 관련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인 대학

위해 미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럽다(3회)', '삼겹살(2회)', '음식(2회)', '돼지찌개(1회)', '바보(1회)', '친구(1회)', '엉망이다(1회)', '불쌍하다(1회)', '살이 많다(1회)', '안 똑똑하다(1회)'이다.

19) 주둥이와 코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반응자들은 반응어를 특정한 어휘로 치우쳐 반응하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응답어인 '코'를 사전에 나오는 '주둥이'와 관련 있다고 보아 밑줄을 그었다.

20) 사전에 실제 기술된 내용은 〈표 1〉을 참조하라.

생은 머릿속 연상 작용시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를 우선 고려해 반응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 및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더 우선적이거나 아니면 그쪽으로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양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응어는 '돼지고기'였다. 이는 양국인들의 '음식 문화'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재료'임을 드러내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돼지'의 '동물적 특징'과는 무관한 반응어이다. 그리고 '꿀꿀(소리)'의 경우 한국인에게는 동물인 '돼지'를 알려주는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사전적(辭典的)인 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지'의 '동물적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콜레라'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으로서는 의의가 있으나 사전적인 기준에서의 '돼지'의 '동물적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동일한 자극어 1(동물)로 연상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했을 때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다. 그중 자극어 '동물'과 관련지어 나타난 반응어는 - 연상 작용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유형이라 할 것 - 한국인 대학생에게서 출현하였다. '꼬리(외양), 코(외양)', '핑크색(피부색)'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자극어 '동물'이 '돼지'라는 '제시어'의 '상위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돼지'의 '동물적 특성'을 머릿속에서 활성화시켜 반응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는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 개념이 활성화되기보다는 개인의 경험 및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서 더 활성화되어 '맛있다(맛 평가), 돼지고기(음식 재료)'라는 반응어로 나타났다.

(2) 둘째 칸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삼겹살, 더럽다, 핑크색, 꿀꿀, 똥'이 반응어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동일한 자극어(동물)로 연상의 방향과 범위를 제한하면, '맛있다, 더럽다, 뚱뚱하다, 많이 먹다'가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난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5〉 자극어 1(동물) / ②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삼겹살	9	24%	24%	1	기타	7	제외	제외
2	더럽다	4	11%	35%	2	더럽다	3	15%	15%
3	핑크색[21]	4	11%	46%	3	맛있다[22]	2	10%	25%
4	무응답	3	제외	제외	4	뚱뚱하다	2	10%	35%
5	꿀꿀	2	5%	51%	5	많이 먹다[23]	2	10%	45%
6	똥	2	5%	57%	6	갈비	1	5%	50%
7	가축	1	3%	59%	7	삼겹살	1	5%	55%
8	기름	1	3%	62%	8	불고기	1	5%	60%
응답 인원		40	100%		응답 인원[24]		40	100%	

21) '분홍색(2회)', '살색(1회)'를 포함하였다.

22) '고기 맛있다(1회)'를 포함하였다.

23) '먹다(1회)'를 포함하였다.

24) 응답 인원과 반응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표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돼지김치찌개(1회)', '술(1회)', '냄새(1회)', '완구(1회)', '바보(1회)', '빨간돼지(1회)', '잠을 자요(1회)', '아무일도 안 한다(1회)'이다.

한국인 대학생 경우 첫째 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둘째 칸에서 유의미하게 처음 나타난 반응어는 '삼겹살(음식 재료)', '똥(찌꺼기)', '더럽다(평가)'이다. 해당 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것은 다음 세 유형의 연상 반응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연상자 스스로가 이미 첫째 칸에서 산출한 반응어를 제외하고,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를 다시 머릿속으로 점화시켜 연상 작용을 한 결과일 것이다(이하. ㉯유형). 둘째, 각 연상자가 첫째 칸에서 산출한 반응어를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다시 그것을 연상 대상이나 자극어로 삼아, 머릿속으로 연상 작용을 점화시켜 일으킨 결과일 것이다(이하, ㉰유형). 셋째, 각 연상자가, ㉯와 ㉰ 중 특정 1가지 유형만 선택하지 않고, 필요할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와 ㉰를 혼합하거나 이를 칸마다 다르게 선택해 머릿속에서 연상 작용을 일으킨 결과일 것이다(이하. ㉱유형).

'더럽다, 똥' 반응어도, 이에 기대어 분석해 보면,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둘째 칸에서 산출된 반응어가 국어 사전적 의미 중 주변적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삼겹살(음식 재료)'과 '꿀꿀(소리)'는 ㉯ 또는 ㉱유형일 것으로 생각되며 '핑크색(피부색)'은 위의 유형이 아니라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를 고려한 반응어'인 ㉮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둘째 칸부터는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를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머릿속으로 연상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 또는 ㉱유형으로 연상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둘째 칸에서 처음 나타난 유의미한 반응어는 '뚱뚱하다(물체의 외양, 몸의 상태)', '많이 먹다(행동)', '더럽다(평가)'이다. 해당 칸에 처음 등장한 이것은, 한국인 대학생과 달리, 첫째 칸에서부터 '자극어'와 '돼지(제시어)'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다른 것(개인의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에 기대어 반응어를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셋째 칸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꼬리, 더럽다, 동물, 돼지우리, 먹보, 삼겹살'이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는 '맛있다'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6〉 자극어 1(동물) / ③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무응답	11	제외	제외	1	기타	제외	제외	제외
2	꼬리	2	7%	7%	2	맛있다	2	14%	14%
3	더럽다	2	7%	14%	3	돼지고기	1	7%	21%
4	동물[25]	2	7%	21%	4	돼지머리	1	7%	29%
5	돼지우리	2	7%	28%	5	돼지 간	1	7%	36%
6	먹보	2	7%	34%	6	돼지갈비	1	7%	43%
7	삼겹살	2	7%	41%	7	요리	1	7%	50%
8	핑크색[26]	2	7%	48%	8	삼겹살	1	7%	57%
9	게으르다	1	3%	52%	9	소주	1	7%	64%
10	고기	1	3%	55%	10	무응답	20	제외	제외
11	고사	1	3%	59%					
12	금돼지	1	3%	62%	응답 인원[27]		40	100%	
응답 인원		40	100%						

25) '애완동물(1회)'를 포함하였다.
26) '살색(1회)'를 포함하였다.
27) 응답 인원과 반응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표에 논의의 편의를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첫째 칸과 둘째 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칸에서 처음 등장한 유의미한 반응어는 '동물(생물, 돼지의 상위어)', '돼지우리(서식처)', '먹보(사람 비유)'이다. 해당 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것은 '돼지우리'의 경우 '㉮~㉱'로, '먹보'의 경우 '㉰ 또는 ㉱', '동물'의 경우 '㉯'로 연상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응어가 없다. '맛있다'의 경우는 이미 첫째 칸부터 나타난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 반응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인 대학생에게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의 학생들에게 '셋째 칸'은 '첫째 칸'과 어떤 관계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를 되짚어 머릿속 연상 능력이 재설정되어 새로운 연상 활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전의 머릿속 연상 능력에서 멈추거나 되돌아가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타 및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반응어(이하. 주변 반응어)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게으르다(성미 및 버릇)', '고사((告祀) 사회·문화적 행위)' 등의 주변 반응어가 등장하며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돼지고기(음식 재료)', '돼지머리(신체 부분, 고사 음식)', '돼지 간(신체 장기)', '돼지갈비(신체 부분, 음식)' 등의 주변 반응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버릇, 행위'로 갈무리 될 수 있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신체 부분, 음식'으로 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해 미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로또(1회)', '먹다(1회)', '뚱뚱하다(1회)', '어리석다(1회)'이다.

(4) 넷째 칸과 다섯째 칸

먼저 넷째 칸의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자. '코, 돼지고기, 뚱뚱하다, 핑크색'이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맛있다'가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7〉 자극어 1(동물) / ④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비율
1	무응답	17	제외	제외	1	기타	5	제외	제외
2	코	3	14%	14%	2	맛있다[28]	2	29%	29%
3	돼지고기[29]	2	9%	23%	3	고기	1	7%	43%
4	뚱뚱하다	2	9%	32%	4	족발	1	7%	57%
5	핑크색[30]	2	9%	41%	5	무응답	28	제외	제외
6	개돼지	1	5%	45%					
7	꿀꿀	1	5%	50%					
8	다이어트	1	5%	55%	응답 인원[31]		40	100%	
9	도살장	1	5%	59%					
응답 인원		40	100%						

28) '멋있다(1회)'를 해당 빈도에 포함하였다. 이유는 '맛있다'의 표기 오류로 보였기 때문이다.

29) '고기(1회)'를 포함하였다.

30) '살색(1회)'를 포함하였다.

31) 응답 인원과 반응어의 빈도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1회 빈도를 보여주는 반응어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1회)', '맥주(1회)', '뚱뚱하다(1회)'이다.

양국의 유의미 반응어들은 이미 첫째 칸부터 나타나 기술된 것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주변적인 반응어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개돼지(개와 돼지 지칭어, 사람 비유)', '다이어트(음식 조절)' 등이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고기(음식 재료)', '족발(신체 부분, 음식)'이다. 이것은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사람'이나 '사람과 관련된 행위'로 갈무리될 수 있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음식 재료 또는 음식'으로 갈무리될 수 있다.

다음은 다섯째 칸으로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고기'가 유일한 유의미 반응어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가 없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8〉 자극어 1(동물) / ⑤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무응답	26	제외	제외	1	기타	4	제외	제외
2	고기	4	29%	29%	2	비행기	1	25%	25%
3	고사 상	1	7%	36%	3	게으르다	1	25%	50%
4	뚱뚱하다	1	7%	43%	4	무응답	32	제외	제외
5	배고프다	1	7%	50%	응답 인원[32]		40		
6	분홍색	1	7%	57%					
응답 인원		40	100%						

한국인 대학생의 유의미 반응어 '고기'의 연상 유형은 '돼지고기'와 동일하다. ㉮ 또는 ㉯에 해당할 것이다. 주변 반응어는 '고사상(사회·문화적 행위, '고사'와 '상'의 결합어)', '배고프다(감정)' 등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주변 반응어는 '게으르다(성미 및 버릇)',

32) 응답 인원과 반응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고기(1회)', '마늘(1회)'이다.

‘비행기(교통수단)’ 등이다. ‘비행기(고통수단)’는 얼핏 특이하거나 ‘돼지(제시어)’, ‘동물(자극어)’과 무관해 보이지만 여러 반응어를 훑어보고 여러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돼지의 얼굴 모양’으로 만든, 즉 ‘장난감 비행기’이다. 아마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년시절부터 자주 접하는 장난감으로 연상 작용 시 그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뤄진 각 칸별 구체적인 반응어에 따른 논지 전개와 설명은 ‘자유연상’, 즉 기존의 연구 방법에 없던 부분이거나 간과하던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제한연상’인 ‘단어의미연상’이야말로 이와 같은 점을 보충 설명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후행 연구의 토대가 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2) 자극어 2(‘별명’)와 각 칸별 반응어

여기에서는 자극어 1처럼 표 안 글자가 진한 것만을 살펴보고 자극어 2 선정에 이용한 각국의 사전(辭典) 속 뜻풀이와 관련지어 해당 반응어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첫째 칸

한국인 대학생은 ‘뚱뚱하다(물체의 특성 및 상태)’만이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난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동일한 자극어로 연상의 방향과 범위를 제한하면 ‘많이 먹는 사람(행위자)’, ‘뚱뚱하다(물체 특성 및 상태)’, ‘게으르다(성미 및 버릇)’, ‘멍청하다(자극반응, 정신)’, ‘바보(저지능, 사람 비유)’가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난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9〉 자극어 2(별명) / ①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뚱뚱하다	24	60%	60%	1	많이 먹는 사람	10	25%	25%
2	많이 먹다	4	10%	70%	2	뚱뚱하다	4	10%	35%
					3	게으르다	4	10%	45%
					4	멍청하다	3	8%	53%
					5	바보	3	8%	60%
					6	더럽다	2	5%	65%
응답 인원		40	100%		응답 인원		40	100%	

한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국어 사전(辭典)을 살펴보면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인 '많이 먹는 사람(행위자)', '뚱뚱하다(물체의 외양, 몸의 상태)', '게으르다(성미 및 버릇)', '멍청하다(자극 반응, 정신)', '바보(저지능, 사람 비유)' 도 중국어 사전의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33] 이것은 연상 유형의 ㉮에 해당하며 양국 모두 그 점에서 공통적이다. 아래는 이를 뒷받침해 줄 각국 사전(辭典)의 뜻풀이이다.

33) 주변적 의미는 비유적 유미를 포함한다. 비유적 의미의 광역성과 대중성에 대해서는 '박종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7호, 2009, p. 363'을 참고하라.

〈표 10〉 각국 사전, '돼지' 주변적 의미 서술 내용

한국	사전(辭典) 서술 내용	
	▪ … ▪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중국	사전(辭典) 서술 내용	연구자 및 중국어 전공자, 기타 참고 자료[34]의 해석
	① 猪魈(猪怪, 猪精)	온라인 게임 '서유기'의 애완용 돼지(猪怪) 저팔계(돼지요괴, 돼지정령)[35] → 추루하고 ⑤ 탐식하며 탐욕적인 사람(욕설)
	② 猪膀胱(又称 "猪尿泡"、"猪胞"、"猪尿脬"、"猪脬")	돼지 방광, 돼지 오줌보 →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물건
	③ 小猪(又叫 "猪牙子"、"猪仔"、"猪娃"、"猪娃子")	아기돼지, 새끼돼지 → 귀여운 아이, 통통한 아이, ⑥ 뚱뚱한 아이, 착한 아이(칭찬, 애칭)
	④ 母猪(又叫 "猪婆"、"猪婆子"、"猪娘")	어미돼지 → ⑥ 뚱뚱하고 ⑦ 아둔하고[36] 탐욕스러운 년(욕설, 방언)

양국 학생들의 '반응어'가 위 표에 나타나면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뚱뚱하다'가 국어 사전에 있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많이 먹는 사람(⑤)', '뚱뚱하다(⑥)', '멍청하다(⑦)', '바보(⑧)', '게으르다(⑨)'가 중국어 사전에

34) 기타로 참고한 자료는 각종 중국어 사전 웹사이트이다. 해당 주소는 참고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덧붙여 본 연구는 Y대학교 소속 중국어 통·번역 전공 외국인 교원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

35) 외모는 '추괴(醜怪, 추하고 괴상하다)'하고 '탐흘(貪吃, 탐욕과 탐식)'과 '호색(好色, 이성을 좋아하다)'하는 '정령(精靈) 돼지'를 말한다. 이는 서유기 소설 속 중요 인물의 하나인 '저팔계'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추루(醜陋, 추하고 더럽다)' 혹은 '탐욕(貪慾)적'인 사람에게 욕할 때 사용한다(참고 문헌의 '中華民國 教育部 國語小字典 第二版' 웹사이트 주소를 참고하라).

36) 우리말의 '아둔하다'를 중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愚笨, 迟钝, 蠢, 笨'으로 나타난다(참고 문헌에 나오는 '중국어 사전(daum)'을 참고하라).

있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 '멍청하다, 바보, 게으르다'는 그들 사전의 ④에 해당하고 이를 의역한 것은 ⑦에 해당한다. 그리고 '뚱뚱하다'는 ⑤와 ⑥에, '많이 먹는 사람'은 ①과 ⑤에 해당한다.

양국 공통 반응어는 '뚱뚱하다'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중국어 사전의 경우 '뚱뚱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小猪'와 '母猪'의 '猪'는 '사용 대상(아이, 여자)'이 누구냐에 따라 '사용 정황(칭찬(애칭), 욕설 및 방언)'도 달라진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연상 작용도 대체로 이와 유사할 것이다. 우리의 국어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사전 속 주변적 의미는 '사람(사용 대상)'과 '놀림조(사용 정황)'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 대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연상 작용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자극어 '별명'으로 연상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면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같기도 하였고 다르기도 하였다. 공통적인 사항은 양국의 학생들에게서 산출된 유의미한 반응어가 사전 속 '주변적 의미'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연상 유형은 ㉮에 해당하였다.

다른 사항은 '양국 공통 반응어' '뚱뚱하다'에서 나타났다. 이는 '사용 대상'과 '사용 정황'에서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는 '아이(칭찬, 애칭)'와 '여성(욕설, 방언)'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사람(놀림조)'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⑵ 둘째 칸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많이 먹다, 뚱뚱하다, 게으르다'가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많이 먹다, 뚱뚱하다, 잠이 많다'가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1〉 자극어 2(별명) / ②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많이 먹다	10	27%	27%	1	무응답	20	제외	제외
2	뚱뚱하다	7	19%	46%	2	많이 먹다[37]	6	30%	30%
3	게으르다	4	11%	57%	3	뚱뚱하다	3	15%	25%
4	무응답	3	제외	제외	4	잠이 많다	2	10%	55%
5	식성이 좋다	2	5%	62%	5	바보	1	5%	60%
6	먹보	2	5%	68%	6	더럽다	1	5%	65%
응답 인원		40	100%		응답 인원		40	100%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첫째 칸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둘째 칸에 처음 나타난 유의미 반응어는 '많이 먹다(행위), 게으르다(성미 및 버릇)'이다. '많이 먹다'는 연상 유형이 ㉰, ㉱이고, '게으르다'는 ㉮~㉱ 유형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첫째 칸에 등장한 것을 제외하고 둘째 칸에 처음 등장한 유의미 반응어는 '잠이 많다(의식 활동의 휴식량)'이다. 연상 유형은 ㉮~㉱이다. 한국인 대학생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해당 반응어가 '자극어 2(별명)'의 '둘째 칸'에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자다' 어휘가 중국인 유학생의 작문에서 약 26% 정도로 등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인 '잠이 많다'도 '자극어 2(별명)'에서만 나타난 반응어로서 이것이야말로 중국인 유학생들만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한연상'인 본 연구의 '단어의미연상'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방법 및 도구일 것이다.

37) '먹다(2회)', '먹는 게 많다(1회)', '밥 많이 먹는다(1회)'를 포함하였다.

(3) 셋째 칸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식성이 좋다(성미 평가), 더럽다(평가)'가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응어는 '잠잔다, 먹기 좋아하다'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 자극어 2(별명) / ③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비율
1	무응답	13	제외	제외	1	무응답	27	제외	제외
2	식성이 좋다	5	19%	19%	2	잠잔다[38]	2	15%	15%
3	더럽다	3	11%	30%	3	먹기 좋아하다[39]	2	15%	31%
4	많이 먹다	2	7%	37%	4	많이 먹는 사람	1	8%	38%
5	지저분하다	2	7%	44%	5	회색	1	8%	46%
6	토실토실하다	2	7%	52%	6	더럽다	1	8%	54%
7	귀엽다	2	7%	59%	7	어리석다	1	8%	62%
8	게으르다	2	7%	67%	응답 인원		40	100%	
응답 인원		40	100%						

한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앞 칸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이는 ㉮, ㉱의 연상 유형이다. 해당 반응어는 사전적 의미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현실세계에 있는 돼지의 행동이나 습성을 연상자가 머릿 속에 떠올린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인 대학생의 반응어는 앞 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응어

38) '먹고 잔다(1회)'를 포함하였다.
39) '자고 먹는다(1회)'를 포함하였다.

를 대상으로 연상 유형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중복해 서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별한 점은 둘째 칸부터 나타난 '잠' 관련 어휘가 해당 칸에서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4) 넷째 칸과 다섯째 칸

먼저 넷째 칸의 한국인 대학생들의 경우 '귀엽다(외양 및 행위 평가)'가 유의미한 반응어이다. 연상 유형은 ㉰, ㉱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반응어가 없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3〉 자극어 2(별명) / ④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무응답	30	제외	제외	1	무응답	37	제외	제외
2	귀엽다	2	20%	20%	2	게으르다	1	33%	33%
3	더럽다	1	10%	30%	3	잠을 많이 자다	1	33%	67%
4	못생기다	1	10%	40%					
5	게으르다	1	10%	50%					
6	돼지코	1	10%	60%					
응답 인원		40	100%		응답 인원		40	100%	

다음으로 다섯째 칸의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와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인데 모두 유의미한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주변적인 반응어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4〉 자극어 2(별명) / ⑤ 반응어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무응답	37	제외	제외	1	무응답	39	제외	제외
2	탐욕	1	33%	33%	2	잠을 자주 자다	1	100%	100%
3	피부가 붉다	1	33%	67%	응답 인원		40	100%	
응답 인원		40	100%						

비록 주변적인 반응어이지만 여기에도 '잠'과 관련된 것이 나타난다.

4. '단어의미연상' 반응어와 '자유연상' 반응어의 비교

여기서부터는 각 칸마다의 유의미 반응어 및 주변 반응어를 모두 모아 분류한 뒤 대표 어형별로 제시할 것이다. 물론 빈도와 비율, 누적 비율에 따라 유의미한 반응어도 다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앞의 것과는 다른 경향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자유연상(선행 연구)'과의 비교도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자극어 1(동물) 전체를 유의미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표이다.

〈표 15〉 자극어 1(동물)/ 반응어 전체 모둠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무응답	58	제외	제외	1	무응답	93	제외[40]	제외
2	삼겹살	14	10%	10%	2	기타[41]	26	제외	제외
3	핑크색[42]	13	9%	19%	3	맛있다	14	17%	17%
4	돼지고기[43]	11	8%	27%	4	돼지고기[44]	8	10%	27%
5	꿀꿀	10	7%	34%	5	뚱뚱하다	8	10%	37%
6	돼지꼬리[45]	8	6%	39%	6	더럽다	6	7%	44%
7	코	8	6%	45%	7	불고기	6	7%	52%
8	더럽다	6	4%	49%	8	바보	4	5%	57%
9	뚱뚱하다	6	4%	54%	9	삼겹살	4	5%	62%
10	먹보	5	4%	57%	반응어 합계[46]		200	100%	
11	돼지우리[47]	4	3%	60%					
12	콜레라	3	2%	62%					
반응어 합계		200	100%						

40) '기타'와 '무응답'의 빈도는 비율 및 누적 비율에서 제외하였다.

41) 기타로 처리한 이유는 해당 항목이 잘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42) '분홍색(5회)', '살색(3회)'를 포함하였다.

43) '고기(9회)'를 포함하였다.

44) '고기(1회)'를 포함하였다.

45) '꼬리(7회)'를 포함하였다.

46) 응답 수 합계와 반응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표에 미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많이 먹다(3)', '돼지갈비(2회)', '돼지찌개(2회)', '어리석다(2회)', '돼지머리(1회)', '돼지 간(1회)', '족발(1회)', '사람(1회)', '친구(1회)', '비행기(1회)', '완구(1회)', '음식(1회)', '요리(1회)', '마늘(1회)', '술(1회)', '맥주(1회)', '소주(1회)', '냄새(1회)', '로또(1회)', '빨간 돼지(1회)', '살이 많다(1회)', '잠을 자요(1회)', '아무일도 안 한다(1회)', '엉망이다(1회)', '불쌍하다(1회)', '게으르다(1회)'이다.

47) '축사(1회)'를 포함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는 '삼겹살, 핑크색, 돼지고기, 꿀꿀, 돼지꼬리, 코, 더럽다, 뚱뚱하다. 먹보, 돼지우리'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는 '맛있다, 돼지고기, 뚱뚱하다, 더럽다, 불고기'이다. 양국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어는 '뚱뚱하다. 돼지고기, 더럽다'이다. 다음으로 '자유연상'의 대표적 선행 연구 반응어이다. 아래 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반응어 결과[48]를 본 연구에 맞춰 구성한 것이다.

〈표 16〉 20대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순위	20대 반응어(ⓐ)	비율	순위	외국인 유학생 반응어(ⓑ)	비율
1	삼겹살	50	1	삼겹살	56.3
2	구제역	45	2	고기	43.8
3	고기	25	3	뚱뚱하다	25.0
4	소	20	4	더럽다	18.8
5	저금통	15	5	탕수육	12.5
6	비만	15	6	둔하다	12.5
7	복권	15	7	동물	12.5
8	더러움	15	8	귀엽다	12.5
9	핑크	10	9	게으르다	12.5
10	포동포동	10	10	갈비	12.5
	복	10			
	돼지코	10			
	꿀꿀	10			
	꼬리	10			
	갈비	10			
	가축	10			
총합	㈎ 20명(?) ㈏ 16명(?) 기타(?)	㈏ 100%(?) 280%(?)	총합	㈎ 16명(?) 12명(?) ㈏ 기타(?)	㈎ 100%(?) ㈏ 218.9%(?) 기타(?)

48) 앞의 논문(각주 2번), 'pp. 152-153'에 해당한다.

표에 나오는 용어 '순위', '비율', '반응어'는 선행 연구자의 것 그대로이고 용어 '총합'과 진한색으로 처리한 글자는 본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진한색 글자 중 총합의 가로 부분 (나)는 선행 연구자의 설명 부분이 없어 본 연구자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본 것이다.[49] (가)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해 놓았거나 (예: 한국인 20대 20명) 모호하게 설명해 놓은 것(예: 외국인 유학생 16명 중 주로 중국인 12명이 반응어를 써 놓았다)[50]을 적은 것이다. 물음표(?)의 의미는 (가)의 경우 해당 연구자의 설명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며 (나)의 경우 (가)로 인해 본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나머지 진한색은 표 안 ⓐ와 ⓑ에에 나오는 공통 반응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유의미한 반응어는 모두 10순위 안의 것으로서 한국인 20대와 외국인 유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것은 '삼겹살, 고기, 갈비'이다.[51]

이제 두 연구를 비교해 보자. 양 연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반응어는 아래의 표와 같다.

---

49) 즉 어떤 반응어가 100%를 기준으로 할 때 50%라면 나머지 반응어는 무엇이며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빈도도 구체적으로 몇 회인지를 해당 반응어에 없었다. 그래서 과연 선행 연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를 본 연구자 임의대로 반응어에 따른 인원을 1명으로 잡았을 때의 인원 수 총합 및 백분율의 총합으로 계산해 본 것이다.

50) 외국인 유학생 16명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2010년 현재) 중국인 12명, 카자흐스탄 1명, 베트남 1명, 미얀마 1명, 몽골 1명으로서, 주로 응답한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하였다(위의 논문, p. 142에 나오는 각주 5번을 참조하라).

51) 본 연구자는 '더럽다(20대)'와 '더러움(유학생)'의 경우 선행 연구의 어형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공통적 반응어로 분류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비만'과 '뚱뚱하다' 그리고 '가축'과 '동물'도 공통 반응어로 분류하지 않았다.

〈표 17〉 '본 연구(제한연상)'와 '선행 연구(자유연상)'의 비교

번호	본 연구 (자극어 1 전체)	선행 연구	번호	본 연구 (자극어 1 전체)	선행 연구
	한국인 대학생	한국인 20대		중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1	삼겹살	삼겹살	1	돼지고기	고기
2	핑크색	핑크			
3	돼지꼬리	꼬리	2	뚱뚱하다	뚱뚱하다
4	코	코			

한국인의 경우 '삼겹살, 핑크색, 돼지꼬리, 코'이고 이중 '돼지'의 국어 사전적 의미 중 '중심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핑크색(색)', '돼지꼬리(외양)', '코(외양)'이다. 외국인의 경우 '돼지고기(음식 재료)', '뚱뚱하다(물체의 외양, 몸의 상태)'이다. 이중 '돼지'의 중국어 사전적 의미 중 '중심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전무하다.

두 연구에서 공통 반응어가 나온다는 것은 '단어의미연상(제한연상, 본 연구)'이든 '단어연상(자유연상, 선행 연구)'이든 '연상하기'라는 것을 시행하면 반드시 나오거나 나와야 하는 반응어가 있다는 뜻이다. 두 연구 모두 사전의 중심적 의미와 일치하는 외국인 학생의 반응어가 없었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 지금까지 본 연구의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자극어 1)'에는 적어도 1장의 예문 (a), (b)에서 보았던 특정 어휘 '자다'와 관련된 반응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음 본 연구의 '자극어 2(별명)'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반응어 전체 모둠'에서는 해당 반응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8〉 자극어 2(별명)/ 반응어 전체 모듬

번호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비율	번호	중국인 유학생 반응어(ⓑ)	빈도	비율	누적비율
1	무응답	83	제외	제외	1	무응답	123	제외	제외
2	뚱뚱하다[52]	32	27%	27%	2	많이 먹는 사람[53]	12	16%	16%
3	많이 먹다	16	14%	41%	3	많이 먹다[54]	9	12%	27%
4	게으르다	10	9%	50%	4	잠자다[55]	8	10%	38%
5	식성이 좋다	10	9%	58%	5	뚱뚱하다	7	9%	47%
6	귀엽다	5	4%	62%	6	게으르다	6	8%	55%
7	더럽다	5	4%	67%	7	바보	4	5%	60%
8	잘 먹다[56]	4	3%	70%	8	더럽다	4	5%	65%
9	토실토실하다[57]	4	3%	74%	9	멍청하다	4	5%	70%
반응어 합계		200	100%		10	살찌다[58]	3	4%	74%
					반응어 합계		200	100%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는 '뚱뚱하다, 많이 먹다, 게으르다, 식성이 좋다'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반응어는 '많이 먹다, 잠자다, 뚱뚱하다. 게으르다'이다. 양국 학생들에

52) '똥똥하다(7회)'를 포함하였다.

53) '많이 먹는(은) 사람(3회)', '밥을 많이 먹는 사람(3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1회)', '잘 먹은 사람(1회)'를 포함하였다.

54) '먹다(2회)', '먹는 게 많다(1회)', '밥 많이 먹는다(1회)', '밥을 많이 먹는다(1회)', '자고 먹는다(1회)', '먹기 좋아하다(1회)'를 포함하였다.

55) '잠을 좋아하다(1회)', '잠잔다(1회)', '먹고 자다(1회)', '잠이 많다(2회)', '잠을 많이 자다(1)', '잠을 자주 자다(1)'를 포함하였다.

56) '잘 먹는다(1회)'를 포함하였다.

57) '통통하다(1회)'를 포함하였다.

58) '살이 많다(1회)'를 포함하였다.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어는 '뚱뚱하다, 많이 먹다'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잠자다'가 자극어 2(별명)에서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난다. 이는 1장의 예문에서 보았던 특정 어휘 '자다'와 유사한 반응어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자극어 1(동물)'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연상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한 '제한연상(단어의미연상)'의 '자극어 2(별명)'에서만 확인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에게서만 나타난 반응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어의미연상검사(제한연상)'의 장점 및 특성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 중 '돼지'를 선택하여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유학생)에게 제시하고(제시어), 그것과 관련하여 따로 설정된 특정 단어를 추가로 보여 주어(자극어 1, 2) 연상의 방향 및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연상해 내는 반응어의 양상을 주로 고찰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 연상인 '단어의미연상검사'로 '자극어 1(동물)', '자극어 2(별명)'에 따른 각 칸별 반응어 양상을 검토하면서 머릿속 연상 작용의 유형을 다음의 4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유형은 자극어 '동물'과 관련지어 나타난 반응어가 나타난 경우였다. ㉯유형은 연상자 스스로가 이미 첫째 칸에서 산출한 반응어를 제외하고, 자극어와 제시어의 관계를 다시 머릿속으로 점화시켜 연상 작용을 한 경우였다. ㉰유형은 연상자가 첫째 칸에서 산출한 반응어를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여 다시 그것을 연상 대상이나 자극어로 삼아, 머릿속으로 연상

작용을 점화시켜 일으킨 경우였다. ㉮유형은 연상자가, ㉯와 ㉰ 중 특정 1가지 유형만 선택하지 않고, 필요할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와 ㉰를 혼합하거나 이를 칸마다 다르게 선택해 머릿속에서 연상 작용을 일으킨 경우였다.

그리고 연상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는 '자극어 1(동물)'과 '자극어 2(별명)'로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작성한 반응지의 각 칸별 반응어를 유의미한 것을 주요 논거로 제시해 검토하고 고찰하였다.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자극어 1(동물)의 각 칸별 반응어 양상이다. 첫째 칸은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꿀꿀, 꼬리, 돼지고기, 핑크색, 코, 콜레라'가 반응어로 나타났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맛있다, 돼지고기'가 반응어로 나타났다. 둘째 칸은 한국인 대학생 경우 '삼겹살, 더럽다, 핑크색, 꿀꿀, 똥'이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뚱뚱하다(물체의 특성 및 상태)', '많이 먹다(행동)', '더럽다(평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한국인 대학생 반응어는 '동물(생물, 돼지의 상위어), 돼지우리(서식처), 먹보(사람 비유)'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첫째 칸과 동일한 '맛있다'가 나타났다. 넷째 칸의 반응어 양상을 정리하면 한국인 대학생들의 유의미 반응어는 '코, 돼지고기, 뚱뚱하다, 핑크색'이었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의미 반응어는 '맛있다'였다. 다섯째 칸의 경우 한국인 대학생의 유의미 반응어는 '고기'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극어 2(별명)'의 각 칸별 반응어 양상이다. 첫째 칸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뚱뚱하다(물체 특성)'만이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많이 먹는 사람(행위자), 뚱뚱하다(물체 속성), 게으르다(성미 및 버릇), 멍청하다(자극반응, 정신), 바보(저지능, 사람 비유)'가 유의미한 반응어로 나타

났다. 둘째 칸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많이 먹다, 뚱뚱하다, 게으르다'가 유의미 반응어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많이 먹다, 뚱뚱하다, 잠이 많다'가 유의미 반응어였다. 셋째 칸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유의미 반응어는 '식성이 좋다(성미 평가), 더럽다(평가)'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 반응어는 '잠잔다, 먹기 좋아하다'였다. 넷째 칸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귀엽다(외양 및 행위 평가)'만 유의미 반응어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유의미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칸의 경우 양국 학생들 모두에게 유의미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어의미연상(본 연구)' 반응어와 '자유연상(선행 연구)' 반응어의 비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자극어 1 전체 모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특정 어휘 '자다'와 관련된 '잠자다'가 '자극어 2(별명)'에서 유의미 반응어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연상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한 '제한연상(단어의미연상)'을 실시한 본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본 연구의 장점이자 특성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각 칸별 그리고 자극어별 모둠의 구체적인 반응어에 따른 논지 전개와 설명은 '자유연상'이라는 기존의 연구에서 없었던 부분이거나 간과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 결과로 '제한연상'인 '단어의미연상검사'가 이와 같은 관련 예들을 조사, 수집, 연구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단어의미연상검사'의 관련 분야 및 후행 연구에 토대 연구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음도 증명하였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어 교육'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지만 본 학술지의 지면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조만간 후속 연구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주) 낱말 창고 웹사이트 http://www.wordnet.c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
국어 사전(naver) 웹사이트 http://krdic.naver.com
在線新華字典 웹사이트 http://xh.5156edu.com
중국어 사전(naver) 웹사이트 http://cndic.naver.com
중국어 사전(daum) 웹사이트 http://dic.daum.net
中華民國 教育部 國語小字典 웹사이트 http://dict.mini.moe.edu.tw
汉典 웹사이트 http://www.zdic.net

2. 논문

김은혜, 「의미 중심 어휘 지도를 위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조사」,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제88호, 2011, pp. 135-169.
박선옥, 「한국인과 중국인의 단어 연상의미 조사 분석과 단어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25집, 2008, pp. 71-98.
박종갑, 「[두부(頭部)] 관련 관용 표현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7호, 2009, pp. 361-388.

3. 단행본

강범모 옮김, 『의미론 2』, 한국문화사, 2013.

[Abstract]

The Animal Name of "pig" Meaning Association to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Beom, Geum-Hee

In this study, 'the word meaning association' of 'limited association' was carried out, which configured presentation word and stimulus word (animal name and nickname) separat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Stimulus word 1(animal) and stimulus word 2(nickname) can be selected as a word related with 'a pig' defined in each country's dictionary. ② Meaningful association response word can be extracted from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foreign university students from China with stimulus word. ③ Comparing association process of both countries' students by a meaningful response word, a type of association can be categorized and presented. ④ Comparing a response word in the advanced study and that of this stud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an be recognized. The above results are significancy of this study and advantage and feature.

Key words: pig, word meaning association, stimulus word, presentation word, response word, animal, nickname

범금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712-749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 810-2110
전자우편: amaila@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13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